

제 9대 총여학생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첫걸음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제9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편집국 드림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 순은 돋거니
충분이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이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가랴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월월 지나서
뿌리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목 차

인사글	여학생 처장님
총여학생회 회장	구성애 선생님의 성교육
나의 대학 생활	이 상아-간호학과 92학번
총여학생회 소개와 사업 설명	이과대 여학생회 소개
쉬어가는 글	여성학 과목 소개
쉬어가는 글	여성학 관련과목 소개
새로 쓰는 동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기획글-	기지촌과 여성의 삶
새내기 교양 자료	- 비디오 이야기
- 책 이야기	총여 광고
만화	CC안에서 내다 보기
CC밖에서 들여다 보기	진= 선= 미= 영?= beauty?
만화로 보는 백양로	만화로 보는 여학생 휴게실
만화로 보는 여학생 휴게실	마무리 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학생처장 이 영 교수



먼저 많은 대학 중에서 우리 연세대학을 선택하고, 우수한 남학생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뤄 새롭게 연세 가족이 된 여학생 여러분의 귀한 선택에 축하를 보내며, 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세동산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연륜과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끊임없는 개혁과 새로운 도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벅넉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연세 동산에서 이 시대 어느 대학생보다도 가장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 속

에서 새롭고 희망찬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연세를 택한 여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은 국내에서는 가장 최초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남학생만을 위한 대학에서 여학생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자적인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연세는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인간적인 분위기를 전통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남성위주의 사회적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세에 모인 여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나 학교에 대한 기대에서도 남학생들에 못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남학생보다도 더 높은 특별히 선택된 우수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하는 동안 여자대학에 다니는 여학생과는 달리 특수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남성 주도적인 캠퍼스 문화에 일찍부터 좌절을 느끼거나, 남성집단에도 소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함께 어울릴 여성집단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자아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

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몇 갑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도 연세 대학에 들어온 우수한 재원이기 때문에, 졸업후 사회에 나아가 자신이 뜻하고 배운 바를 펼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환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학생 여러분, 연세 대학의 일원으로써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자들이 이전에 여러분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끌어 가야 할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 또한 다할 수 있는 연세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학생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대학에만 있는 학생지원 행정부처입니다. 우리는 남성주도적인 조직에서 여학생이 자칫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자 합니다.

여학생처에서 하는 일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으니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상담

가) 여학생 활동 지원 : 총여학생회, 단과대 여학생회, 여학생 중심동아리, 대학원 여학생들의 여학생 조직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또한 총여학생회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 보다 나은 학생활동의 방향과 개선책을 상담한다.

나) 개인 상담 : 여학생들의 사회진출, 장래문제, 개인적 고민 등 주로 남성 교직원들이 상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상담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연결시켜 준다.

다) 성폭력 신고전화 운영 및 상담 : 여학생처와 여성연구소에서는 캠퍼스 안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대학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94년 11월 17일부터 성폭력 신고전화 (교내 2118)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상담요원으로 하여금 신고전화를 접수하게 하



고, 상담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경고, 상담, 전문가의뢰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되,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라)취업지도및 특강 : 여학생 자신의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남학생 과 대등하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생애 개발 워크샵", "사회 진출 을 준비하는 모임", "취업준비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여성학관련 과목의 개발 및 운영 : 남녀 공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남녀의 조 화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 남녀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여성학', '성과 남녀관계', '여성과 문학'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개설해 주며, 이 강의는 특히 남학생들 의 수강을 권장하고 있다.

Ⅱ. 여학생 복지시설 및 운영

여학생들이 휴식하고 독서하며 토론이나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학생 전용 휴게실인 논지당 그리고 학생회관 및 중앙도서관 내 여학생 휴게실을 운영관 리 하고 있다. 그리고 이과대, 공과대에도 여학생 휴게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다.

Ⅲ. 여동문과의 유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동문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여동문간의 결속시킴은 물론, 재 학생과 여동문들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여동문들을 우수한 여성자원으로 활용하며, 여학생지도나 학교발전에 도움을 받는다. 현재 언론계, 학계에서 활약하 는 여동문모임이 있다.

Ⅳ. 여성연구소 운영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21C를 대비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여성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여성연구소' 를 설립('95.3)운영하고 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제9대 총여학생회장 법학과 93학번 신유정



새내기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벨 잘드는 학생회관 3층에서 여러분을 예타게 기다렸습니다. 설레임과 두려 움,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릴 여러분 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도 3년 전에는 4학년 선배 가 아주 높게만 우리러 보이던 작은 꼬마였습니다. 못 믿으시겠더군요? 총여학생회장이란 대단한 직함을 가진 선배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 듯이- 새내기 적에도 뭔가 달랐을 거라구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학이 마냥 꿈같이 좋을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미팅 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영화도 보고 내맘껏 공부도 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스스로도 마음을 터 놓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낯설 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잘난 것만 같고 수업시간이나 세미나 시간 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집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외롭고 힘들어 서 울다가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중, 여고만 다닌 저에게 '남학생'들은 가 까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술자리도 부담스러웠고 선배들의 고뇌에 찬 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여야 했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도 용감하게(?)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제6대 총여 학생회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번의 용기 덕분에 대학생활에 자 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느 끼게 되었고 나의 문제로부터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새내기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고 기다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



다. 여러분 속에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대학 4년 뿐 아니라, 일생을 자신감에 차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의 혼란스러움을 잘 이겨내고 문을 두드릴 작은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이 꿈꿔오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학교에는 1만5천의 남학우와 5천의 여학우들이 모여 삽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2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저래야 한다고 알게 모르게 키워져 온 우리가 하루 아침에 편견을 바꾸기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놀림감이 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교수임용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절반인 여성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면 남성이 살아가기에도 좋은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저항하는 인간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벽을 뚫고 이 자리에 선 여학우, 남학우 여러분!

제 9대 총여학생회는 항상 여학우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고 고민을 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할 남학우들을 이해하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손 잡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앞에 '용기'와 '저항'을 약속합니다.

총여학생회가 준비한 2월 14일 구성애선생님 강연



구성애 선생님은 우리학교 간호학과 75학번이시며 현재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부회장을 맡고 계신다. 저서로는 『구성애의 성교육』이 있고 여러 학교에서 성교육 강의를 해 오셨다.

“임신과 출산으로 축하받아야 할 생명이 낙태와 아기 수출로 저주받고 있고, 방향없는 사랑은 배신과 상처를 낳고 있으며, 감각만을 위주로 한 쾌락은 변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분석이 모자라서인가? 법이 약해서인가? 지식이 없어서인가? 성을 담당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려면 ‘생명’의 관점이 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구성애의 성교육』 중에서)





나의 대학생활에 비추어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들들들

간호학과 92학번 이상아 (제8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대학에만 들어가면 나는 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거라고 생각했었다. 예를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한다든지, 교문앞에 지키고 서 있는 학생주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달이 멀다하고 머리를 짧게 깎는 일이라든지, 산더미같은 책가방과 도시락주머니, 신발주머니를 들고 정경대면서 다녀야 하는 일이라든지, 수업이 끝나도 꼼짝없이 앉아서 자율학습인지 타율학습인지를 해야만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도 땡이라는 생각이었다. 하하하! 이제 내 인생에도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리라~~~~~

역시 그랬다. 매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머리도 기른든지 묶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고 학교에 갈때 지하철 패스하나만 달랑 가져가도 되었고 수업과는 상관없이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었다. 밥 사주는 선배도 많고 술이라는 것도 먹어보고 대학생이라는 특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으니 말이다. 특히 새내기라는 것(욕하지 마시라! 그 당시만해도 나는 참신한 92학번이었다.)은 참 좋은 특권이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았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선배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니까. 92년 초에 나에게서는 밥값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가 없었다. 히히히! 새내기여 영원하라~~~~~

그러나 나는 큰 오산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주 많이 늘어난 만큼, 내가 해야 할 의무 또한 무진장하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에게 열려진 기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 열려진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댓가는 내가 치워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예를들어 내가 수업을 매일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나쁜 학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듯이 말이다.

누가 말했든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래, 정말 대학은 무진장하게 넓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싶은 것도.

기대하시라~~~~~

돌아보면, 나도 참 여기저기 많이도 뛰었고, 많은 사람과 부대끼고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졸업을 하는 이 마당에 내 주위에는 만나서 수다떨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밥사줄 사람, 밥 사줘야 하는 사람이 많다. 학생으로서의 시절을 마감하며 여러가지 생각들, 여러가지 준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말이다. 대학에서 제일 크게 놀란것이 바로 다양한 사람들도. 좁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 다들 자라온 고향은 왜이리 제각각인지 또한 그만큼의 무수한 사투리들, 또 그만큼의 다른 환경들, 그리고 생각들!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 그런 사람들과 한 학교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웬지 기대가 되기도 했다. 꼭 서울에서만 자란 나는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영성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모여서 함께 놀고 세미나하고 농활가는 등의 일들이 내게는 즐거움이요, 신세계였다.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변하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공주병이네 뭐네 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성숙하려면 멀었지만 걸음마정도는 피었다고나 할까? 덕분에 늘 화려한(?) 성적표와 부모님의 때서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가끔씩 어딘가에 성적증명서를 내어야 할때 약간 창피해서 그렇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나올거다. 이 글은 아마도 미발식이리라~~~~~ 새내기들에게 사람들을 많이 아주 많이 만날 것을 말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 얘기는 사람은 사람들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리라. 대학생이 되면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무진장하게 많다. 일단 가장 손쉽게 우리과의 선배들, 동기들을 시작으로 문만 두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수십개의 동아리들, 여러 봉사 활동들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깨지고 많이 틀 우리 96학번 새내기들을 기대해보며 아직도 고치지 못한 나의 황설수설을 끝낸다.



잠깐!!

남성 세계의 이방인

그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즘 추진중인 계약문제를 토의하고 있겠지.
그녀가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수다나 떨고 있는 것일 틀림없어.
그가 자리를 비웠다면 회의에 참석중일꺼야.
그녀가 자리를 비웠다면 또 화장고치려갔을 꺼야.
그가 상사와 점심을 먹고 있다면 출세하겠군.
그녀가 상사와 점심을 틀고 있다면 깊은 관계를 맺은 게 틀림없어.
그가 결혼을 한다면 좀 더 안정되게 일을 잘 하겠군.
그녀가 결혼을 한다면 곧 그만 두겠군.
그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식구가 늘었으니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는 걸.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두 달씩이나 유급 휴가라 회사가 손해가 막심하군.
(한국 여성 민우회 『사무직 여성』 1991년 가을호 86-87쪽에서)

지금은 일하는 여성 특히 '캐리어 우먼'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여성들 스스로 평생 갖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여성들의 바램과 너무나 떨어져 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엄연히 존재하건만 아직도 여성들은 직장 내 문턱에서부터 박대당하기 일쑤이고, 중요한 업무나 승진 사다리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제9대 총여학생회 기구 소개

여학생의, 여학생에 의한, 인간을 위한 총여학생회를 만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을 소개합니다.

1. 연세여성 편집국

여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총여학생회 기관지 '연세여성'을 만드는 곳. 재미있고 산만한(?) 만화가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으며 페미니즘 관련 도서와 영화 소개, 학내 학외 여성관련 행사를 다룬다. 기획글을 통해서 여성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총여학생회 활동을 알리고 학우들의 글과 의견을 실는다. 연세대학교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문이며 남학우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2. 여성문화기획국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만이 대학문화의 전부일까. 술자리에선 안주삼아 음담패설이 오고가고 노래방의 TV 화면에는 상품화된 여성의 벗은 몸들이 현란하게 움직인다. '이런데 익숙하지 못한 내가 존스러운 거지'라고 생각하거나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저런 거 몰라. 난 순진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책일까. 여성이 대상화되지 않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대안문화'를 기획하는 곳. 유일한 여학우들만의 공간인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고 '텀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여성공간의 창조를 기획하는 곳.

3. 여성자료실

여러 여성단체가 발간한 자료, 회지, 여성신문, 여성과 관련된 신문기사, 책, 비디오, 모든 것을 모아모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곳. 올해 처음생긴 기구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여학생회에서 중심적인 역할-두뇌(!)-을 할 것이다.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세미나도 하고 글도 쓰고 자료전시 판매 등도 계획하고 있다.



4. 여성연대국

여성운동은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 많은 단체들, 사람들과의 연대 활동은 필수적이다. 미군 기지의 매매춘 여성들과 혼혈아들의 자립을 돕는 두레방에서의 기지촌 활동, 수색동 철거지역 활동, 전국여성농민회와 함께 준비하는 농촌 활동,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수요 집회, 그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곳. 현재 여성민우회가 주관하는 고용평등추진본부를 후원하고 있고, 우조고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의 전화 후원회이기도 하다.

5. 탁아분과(에도레방)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 대학교 총여학생회에 있는 탁아분과 에도레입니다. 거창하게 탁아분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에도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도레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새터어린이집에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새터어린이집에는 28명의 아가들까지 있습니다. 아직 컵병을 들고 다니는 아가들에서부터 4살짜리 아가들까지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동안 새터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뛰어 놀고 있습니다. '에도레'는 아이들과 함께 구르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돕기도 합니다. 처음엔 낯이 설어 눈만 마주쳐도 울기만 하는 아이들도 이젠 뛰어와서 안기기도 하고 장난을 치곤 합니다.

옷에다가 온통 침을 묻히고 안기는 아가들이, 점심때면 방바닥에 밥풀을 흘리면서 혼자서 열심히 손가락질을 해대는 아가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새터어린이집에는 일급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 신경을 쓰시기에는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8명의 아가들의 이모, 삼촌이 되어 아가들에게 그림동화책을 읽어 줄 수 있는 '에도레' 사람이 될 친구들을 찾습니다. 도움을 주는 봉사자보다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고 함께 키나갈 수 있는 활동가일 수 있는 연세인이자 '에도레' 사람들 모두 두 손 번쩍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기왕 손든 김에 '에도레 만세!' '총여 만세!' 도 해줄까 말까??!

바쁘다, 바빠! 총여학생회는 1년동안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새내기 새로배움터

새내기 여러분과의 설레이는 첫 만남 기대하시라

13일부터 15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여성의 거리' 전시회를 합니다. 다섯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여성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문제이며 나의 문제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서론에서는 '노예가 노예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 진정 노예이다. 여성 그대는 노예인가?' 라는 문제제기로 시작하고, 본문에서는 성(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소유)·정치·사회·문화·가족에서의 여성을 다룹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낮은목소리' 포스터 전시와 염서 판매, 기지촌 여성의 자립을 돕는 두레방 빵 판매, 만화로 보는 여대생의 삶, 그림으로 보는 가족 속에서의 여성문제 등등 꾸민 볼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곁들여서 새내기들이 꼭꼭 읽어야 하는 페미니즘 도서 전시 및 판매가 '오늘의 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학교 간호학과 75학번이시고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부회장이신 구성애 선생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단대 여학 연석회의

이과대 여학, 법대 여학, 생과대 여성국, 총여가 한 자리에 모여 힘을 모으고 도움줄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합니다. 여학생처와 함께 해야 할 것들(여성학 강의 개설, 남녀공학 50주년 기념행사, 여대생 취업간담회, 여성연구소 심포지엄)도 의논합니다.

성에 대한 열린 토론회(가칭)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되고 남성들에게는 과장되어온 '성'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가진 오해의 벽들을 허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기는 3월말쯤 강사는 비알

단대별 여성학교(가칭)

단대별 상황에 맞게 주제와 내용을 준비하여 여학이 없는 단대학생회와 함께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연세여성과 PC통신 논지당

'연세여성'은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같이 만들수 있는 총여학생회 신문입니다. 총여활동 소식, 단대 여회, 총여탁아분과 애도래방 소식을 실습니다. 새내기의 글이라면 더욱 대환영입니다.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또다른 곳은 PC통신 HTEL YONSEI 백양로 '논지당'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연대활동

고용평등 파수꾼

여성민주회에서는 고용평등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각 기업의 고용평등 현황을 모니터링 고용평등파수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일반인들로 구성된 예비취업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추진본부에서 마련한

를 작성하여 기업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국회, 기업, 정당 등에 고용평등 정책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제 9대 총여학생회는 고용평등추진본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 성희롱은 여성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박용상 부장 판사는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미하고 사소한 상

황'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침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판결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9대 총여학생회는 공동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동에서의 여성농민반과 아동반 농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 주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루종일 농사일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월름없이 밤하



고 청소하고 아기도 보아야하는 철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배우고 싶어도 아들공부시키

기도 빠듯하니 말은 어렵도 없고 사회에서 그 존재조차 희미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여성농민입니다. 도시에서는 영재교육이다 뭐다해서 대어섯살부터 수십만원짜리 과외도 시키는데 농촌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일어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9대 총여학생회는 농촌활동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수색철거지역 연대활동

'달동네'라고 흔히 부르는 무허가 판자집들이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도 없이 무자비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게딱지만한 판자집이라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수색주민분들이 이제 '가수용단지'를 얻어냈습니다. 학교앞에서 142번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인 수색을 가면 천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살아가시는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패허가 된 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수 있는 좁은 골목골목에서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역활동에 제9대 총여학생회는 늘 함께 합니다.

기지촌 활동

용산, 용인, 파주, 정주, 대전, 의정부, 동

두천, 춘천, 원주, 포항, 군산, 대구, 제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96개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웬만한 중소도시뿐 아니라 서울에도 가장 좋은 위치에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는 백인우월주의와 군사문화가 팽배하고 매패준 여성들의 힘겨운 생활과 대책없이 방치된 혼혈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지촌에서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보게 됩니다. 편견과 순결 이데올로기가 낳은 이 땅 여성들의 파괴된 삶을 재건하는 '기지촌여성공동체 두레방' 활동에 제9대 총여학생회는 헌신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12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00차례가 넘게 일본대사관 앞에서 스무명 남짓한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것도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5문만 소리질러도 목이 막히시는 할머니들이 소리칩니다. 민간위로금 반대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9대 총여학생회는 평생을 치욕과 가난 속에 고통당해오신 할머니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외 활동

여회가 없는 단대 여학생 휴게실과 도서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논지방을 관리합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여대생 대표자협의회에 참여합니다.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4월 총선 정당별 여성정책평가를 할 것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는 무지무지(?) 높은 '총' 단위가긴 하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고민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웬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주눅이 들고 많은 사람들과 친하면서도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학생살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 사고 한번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세요!



이과대 여학생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과대 여학생회는 88년 건설 준비위 기간과 95년 준비위 1년을 합쳐 9년째, 2천 이학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88년, 이과대 오백 여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자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몇 과의 여학우들이 모여, 여학생 공간 문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학생회 건설을 위한 준비위가 생겨나게 되었고, 89년 제 1대 이과대 여학생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6대에 이르기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수련회 준비, 신입생 환영회와 여성 영화제, 설문조사, 도서 대여, 체육제, 여성학 교양학교, 여학생 휴게실 관리 그리고 농촌 활동과 기지촌 활동 등 학내 복지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를 체험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해 왔으며 미군 범죄,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1995년 이과대 여회는 준비위로 있으면서 그간의 학생회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 모습의 실천을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을 고민하였습니다.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내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총여와 함께 연세여성 문화예술제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 비디오 상영과 토론회 마련, 현지 여성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 농민반 지원, 기지촌 활동, 서울대 우회정 조교 성희롱 패소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 등과 함께 2학기에는 이과대 여학우 진로 간담회와 학부제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알려나갔습니다.

1년 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7대 이과대 여학생회도 이제 힘찬 실천을 시작합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연례 사업과 더불어 학부제 하에서 학우들의 진로 문제와 우리의 대학문화를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운동의 이론적 모색을 위한 여성학도 학우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학생활의 시작! 진지한 고민 속에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과대 여학생회가 펼치는 운동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힘찬 실천 제7대 이과대 여학생회

잠깐 함께 생각합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일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아내, 주부로서의 역할로 규정된다. 그런데 전업 주부들이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놀아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여성은 한순간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여성의 일이 집안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 영역과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여성에게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었다.



P.D 다이어리—그것을 알려주마...

교양 과목중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여성학 관련 과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주시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면 여성학이 학우들에게 인기있는 과목으로 손꼽힐 수 있는지 그 원인과 우리학교의 여성학 과목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학교에 여성학 과목이 생긴 것은 80년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이란 한 번은 들어봐야 할 과목으로 성장했다.

원인 첫 번째 우선 페미니즘의 도래로 여성학에 대해 모르면 웬지 고리 타분한 사람으로 인식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원인 두 번째 열린 마음의 진보적인 과목이라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대담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학교 여성학 관련 수업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남녀 평등과 인간화:

한국 유일의 남성 여성학 선생님인 정유정 선생님의 멋진 강의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변독이는 재치가 돋보이는 수업— 중간 고사 이전까지 선생님의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도 일

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의와 질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강의로 많은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다. 중간 고사 이후에는 성, 사랑, 가부장제도, 사회제도, 동성애까지 가장 진보적인 내용을 주제로한 학우들의 발표가 있다. 이 수업에서 큰극은 진부한 매체, 영상기기, 음향기기까지 사용하여 변독이는 풍자와 재치가 수업을 활기 있게 한다.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뒷풀이. 선생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수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뒷풀이 자리는 아마 연세를 통틀어 이 수업 밖에는 없는 듯하다.

여성학:

여성학 수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업은 추애주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고, 학우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넘치는 수업. 남녀 평등과 인간화와 마찬가지로 중간 고사 이전까지는 선생님의 강의로, 그 이후에는 학우들의 발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수업에서는 변독이는 재치보다는 다양한 연구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 연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 수업에 빠질 수 없는 연구 방법. 그 안에서 연세인의 의식을 알아보는 자리가 된다. 이 수업의 주제는 대개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제도와 여성과 남성의 왜곡된 시각을 교

정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는 듯하다.

성과 남녀 관계:

총여학생회 의 성교육 특강이 발전적인 형태로 정식 과목에 채택된 수업. 과목명처럼 성과 남녀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다. 지금까지 왜곡된 형태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성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으로 신화에서 벗어나는 수업이다.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수업이 된다. 지금까지 너무도 남성답게 혹은 여성답게 길러진 우리 학우들에게 진정한 남성다움은 무엇이고 여성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답게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속에 성교육은 필수 과목일 것이고, 필수 과목으로 성과 남녀 관계를 추천할 수 있을 듯하다.

여성과 문학:

총여학생회 제 7대와 8대의 노력으로 여성학 과목의 질과 양이 늘어난 수업. 지금까지 문학에 대한 남성의 주류성에서 벗어나 여성성의 장점과, 그러한 여성성이 나타난 작품을 주제로 진행한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문학에 대한 남성의 독점과 독점을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의 작품을 주제로 이야기 하고, 그러한 작품에 대한 학우들의 비평 리포트로 교수님과 학우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린다.

또한 여성 문학가들의 섭외 강의도 수업의 참여를 높이게 한다.

이 수업의 단점(?)이라면 레포트의 횟수가 많고, 레포트도 열심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점. 신입생들에게는 무리가 따르는 수업이므로 다른 여성학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수강하면 좋을 듯.



새로 읽는 백설공주 이야기

이렇게

독일판 : 우리가 어렸을때 읽은 공주나 왕비 이야기는 모두 외국에서 온 것이다.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등 왜 그랬을까? 또 왕비가 된 심청이와 장원으로 과거 급제한 이도령의 아내가 되는 춘향이 그리고 콩쥐와 팽쥐 이야기는 흡사한데가 많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최근 새로운 운동의 기운이 드높은 독일에서는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문학 사회철학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동화를 재해석하고 원본을 재해석 하는 등 동화를 새롭게 쓰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듯 재해석하는 사회철학자에 따르면 서양에서 동화는 원래 민초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기별'과 정보를 의미하는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초들 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지지하려던 봉건 지배 계급은 이 활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시민혁명 이후에 다시 민초들의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새로운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동화는 소시민적인 당만주의로 채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화는 소시민적인 환경에서 자란 겁많은 작가들 -그림 형제와 같은- 에 의해 변형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은 바로

이 때(1819세기)에 변형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재구성한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여기에 실는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환상의 날개를 퍼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혁명적 동화의 비판의 눈길을 던지는 이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꿈을 어릴때 부터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제대로 꿈을 심어주는 작업이 아닐까? 하여간 마르크시스트가 새롭게 쓴 아래의 동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많을 것이고 동조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같이 읽고 토론해보자. 그리고 우리 자신 새로운 동화를 써보자.

원본 백설공주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그림형제에 의해 전래된 것이며 그 전에 다른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본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해볼까요?!

옛날에 백설공주라고 불리우는 그림같이 예쁘고 착한 소녀가 양친의 성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머리는 흑단나무처럼 까맣고, 밝은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빛처럼 빨갛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는 궁궐의 모든 부귀영화가 백성들의 가난과 고된 노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부터는 마음속 깊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말을 타고 숲속을 가다가 거친 수염을 기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공주는 청년에게 말을 걸어 세상살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자기의 슬픔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시달리기만 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반란군에 그가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헤어질때 그는 공주에게 빨간책 하나를 선물하면서 몰래 그 책을 읽고 궁안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일곱밤 동안 이 책을 읽어서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속에 갔을 때에 공주는 몰래 식량과 칠판, 그리고 몇개의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공주가 일곱 언덕을 넘어 반란군들의 진영에 도착하자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유용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아름다운 공주가 반란군에 가세하였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왕국에 퍼져나가서 자유해방군에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번 왕의 군대의 교활한 음모를 물리친 반란군들은 드디어 성을 함락시키고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설공주가

가담한 혁명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악한 왕비는 감옥에서 평생동안 뜨게질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백성들과 민중에게 행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하여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혁명정부에서 백설공주는 여성해방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백설공주를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아마 죽지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만 보면 시민혁명 전후 시기에 백설공주의 원본은 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후 소시민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집단은 작가들은 그림형제와 같이 이러한 혁명적 원본을 변형시키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숲속에 들어간 백설공주의 자발적인 결의를 공주와 무자비한 아름다움의 경쟁을 하는 질투심 많은 왕비의 복수극으로 만들어 놓았고 일곱 언덕을 지나 살고 있던 용감한 반란군을 '일곱 난쟁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 같은 총각들의 가정부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정의로운 무쟁이 아니라 왕비가 교활하게 독살하려는 몇 시도들이 아슬아슬한 모험으로 기억되는 개인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곡의 장점은 뒤편이해도 갑자기 신분에 맞는 신랑의 등장으로 끝나는 해피엔딩

일 것입니다. 이 끝마무리가 단지 위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난쟁이들의 당황함과 백설공주의 관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난쟁이들의 자세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물론 몇군데에서는 아직도 원본 백설공주의 흔적이 엿보이지요. 위조되지 않은 것은 반란군(난쟁이들) 사이의 연대감과 계급적인 적(계모)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끝으로 왕비에게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그렇게 왕비에게 제공하는 '벽거울'은 구석구석마다 염탐꾼과 스파이를 두고 있는 비밀경찰에 대한 동화적인 비유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거울과 거울의 매수되지 않는 강직함의 비유를 통한 사적인 변형은 특히 설득력있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의 색출과 박해에 있어서 왕비의 주도적인 역할은 실제로 현실에 부합하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않습니까? 물론 동화를 변형시킨 것이 그림형제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형제는 아마 동화를 이미 형편없이 변형된 형태로 발견하여서 단지 균형있게 다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웅적인 민중봉기가 진부하고 조잡한 이야기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무의 이야기는 30년대의 할리우드에서 크게 유행하였지요. '여자가 곤경에 처해 있다가 다시 벗어난다.' 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쓰는 신데렐라 이야기

"동화같은 얘기하지마" 하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향해 말하곤 합니다. 동화적이란 것은 불가능한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는 우리 인간속에 있는 깊은 욕구에 부합하므로 즐겨 읽혀집니다. 신데렐라는 동화의 정수 그 자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되고 있지요. 할리우드는 20년대와 30년대 여러번 그것을 영화로 변형시켰고 통속소설은 아직도 그 내용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지어냈고 왜 무슨 이유에서 지어냈을까요? 성직자였을까요? 아니면 많은 신데렐라의 희망없는 처지를 동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한 영리한 정치가였을까요? 누구였든간에 그 동기는 분명한데 그것은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만 해라. 너희 가난하고 억눌리고 경멸받는 자들아, 언젠가는 너도 금과 은 속에서 아름답고 강한 왕자 옆에서 뽀내며 살게 될 것이다. 사악함이 없고 온 자연이 착한 인간들과 함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날을 참고 기다려라." 고 이 동화

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가 행동을 못하게 하고 꿈꾸는 자들로 하여금 단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게끔 한다면 우리는 동화를 다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데렐라의 원본을 재구성해 볼까요?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죽자 재혼하였는데 새어머니는 소녀를 하녀로 만들었습니다. 거만한 의붓언니들이 무도회에 가고 피아노를 치며 연애를 하고 다니는 동안 소녀는 더러움과 재수에서도 끝도 없이 고된 생활을 한 뒤에 소녀는 무엇인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녀는 마을 우물가에서 매일 아침 다른 집 하녀들과 만나게 되는데 서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는 대신에 하녀의 처지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녀는 그 보고서를 어머니 무덤에서 열린 그 구역 모든 하녀들의 비밀집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소녀가 그 장소를 택한 것은 그곳이 하녀들이 방해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 보고서에 관해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으므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해 일주일의 휴일과 십마르크의 보너스, 그리고 밤일을 더이상 시키지 말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거부당

했습니다. 동맹파업의 날(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시민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녀들은 일제히 일손을 놓았고 주인들은 바쁜 크리스마스 전날 파업을 일으킨 하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이들을 친지의 집에 보내 이틀이나 사흘동안 한 두명의 하녀를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나 똑같은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집 하녀도 일손을 놓았습니니다.' 그렇게 하여 단결된 부엌데기 신데렐라의 연대는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인들은 어쩔수 없이 하녀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단합된 행동이 성공하자 새로운 단원들이 가입하게 되었고 몇 주 안되어 신데렐라는 하녀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열기위하여 집안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잘 조직된 집단행동을 통해 그들의 처지를 훨씬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공담은 곧 여기저기에 퍼져나갔습니니다. 신데렐라는 지방신문과 이어서 중앙신문에까지 나고 시장에서는 그의 사진과 연설문이 새겨져있는 조각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신데렐라는 "단결은 힘이다." 라든가 "우리 팔이 쏠기 싫어하면 모든 빗자루는 멈추어

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신데렐라네 조합에 대한 소문은 왕실예까지 미쳤고 마음 착하고 국민을 걱정하던 황태자는 신데렐라를 한 번 만나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여섯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신데렐라의 작업장에 나타났습니니다. 온 국민들은 왕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한 하녀 신데렐라를 방문하러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신데렐라의 의붓언니들은 시기심 때문에 창백해져서는 그동안 끊어진 친척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였습니다. 몇번 신데렐라와 깊은 대화를 한 왕자는 그에게 반하여 정말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여기에서 그런 식의 동화는 가장 질 나쁜 거짓말을 하는데) 신분차이가 아닌 이해관계와 정치적 신념의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없다는 확신때문에 거만함없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감한 변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족, 신분과 재산이 당신이 이상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나의 지금의 의무에 불충실하게 되던가 아니면 지금하는 것보다 한층 더 마음 아픈 이별을 해야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결혼하지 않고도 인간적이고 진보

적인 행위를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왕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졸라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허용하고, 중세적인 하인법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십시오."

왕자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능란하고 사업에 밝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울것이 드디어 왔습니니다. 화창한 어느날 왕의 병사들이 신데렐라를 체포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작업장은 수라장이 되었고 곳곳에서 판사와 성직자들은 "한 신분이 다른 신분에 대항하여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아름다운 단어 '자유' 를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신데렐라는 왕실모독과 하인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여야 했습니다. 왕자는 그가 실행하고자 하던 첫번째의 진지한 정치적 임무에서 실패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까지 살아서 아버지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저는 연세 여성이라는 신문을 만드는 편집국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자리를 빌어 기지촌에 대해서 새내기 분들께 몇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기지촌,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구요?

물론 처음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연세 여성이라는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중여가 주관하는 기지촌(기지촌 봉사활동)을 통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기지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춘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난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성이 손쉽게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입생 여러분들께 분단, 자본이 낳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말하기보다, 매매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자신이 아니거리는 아무도 그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니까요.

그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두레방 간사분들이 정리한 몇 가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크게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지촌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

1993년 7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송탄의 K-55미군기지 주변의 한 집에서는 미국인이 자신의 두 어린 아이를 죽이고 있었다.

이 미국인은 미군출신의 마크라는 남자였다. 군대에서 12년을 복무한 후 감금조치에 따라 무능력자로 분류돼 제대한 미군이였다. 그의 부인 강승희씨는 34세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필리핀과 미국 동지에서도 군무를 했지만 그 지역 기지촌 여성들과 사귀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승희씨는 혼자서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나와 제대한 남편과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부부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승희씨는 남편과 합의하여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였다.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거였지만 밀려드는 손님들에 의해 새벽 1시나 2시 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귀가시간이 매일 늦어지자 마크는 부인이 한국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했고 승희씨는 이를 불만이 있는 정도로만 알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게 귀가한 승희씨를 마크는 머리와 얼굴, 배 등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승희씨는 집을 나와 버렸다. 이때부터 마크는 승희씨가 다

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승희씨는 마크가 그렇게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승희씨는 집을 나와 송탄에 계속 머물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번 기회에 구타를 일삼는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되돌아 가고는 했다.

19일 새벽 3시, 부인이 안 돌아오자 마크는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아이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마크는 끝내 싸늘하게 식은 시체로 변한 두 혼혈아를 비닐에 싸서 군용자루에 넣어 차고에 넣은 뒤 사진들을 찢고 집을 쫓겼다. 그러던 중 승희씨가 12시경에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불길한 생각에 남편을 다그쳐 물었다. 처음에는 서울 친구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울면서 창고를 가리켰다. 창고에서 아이들을 꺼낸 승희씨는 살려야한다고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팔, 다리를 주물어 댔다. 그러나 죽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리가 없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 일방적인 남편의 오해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생명이 죽어야 했다. 그러나 송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한 마크보다 승희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지촌 여성, 더 나아가서 매춘 여성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 밀바닥에 깔려있어 승희씨를 그렇게 서럽게 비난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보고자 노력한 여성 앞에 놓인

것은 한국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와, 그리고 밤 늦게 다녔다는 비난뿐이었다. 한 미군은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태연히 해댔다. "나도 양키지만 여자가 밤늦게 들어오고 바람을 피운다면 나도 죽여버리겠다." 기지촌의 여성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기지촌의 한 남매

경기도 평택, 안정리에는 K-6이라는 미군 부대가 있다. 그곳은 퇴색해가는 기지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1994년 여름, 공부방에서 만난 혼혈아들은 병들어 가는 엄마의 삶처럼 꿈과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중 한 흑인 혼혈 남매가 있었다. 스티븐은 12살난 남자아이이며, 글로리아는 16살난 여자아이이다.

엄마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저녁 6시에 나가서 다음날 7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시간은 거의 부모의 통제가 없는 무방비 상태이다. 그 시간에 흑인 혼혈아라며 또래 집단에서조차 멸시당하는 글로리아(기가 막히게도 기지촌에서조차 인종차별이 존재한

악순환이다. 기지촌이라는 환경과 혼혈이라는 조건은 글로리아와 같은 아이들까지도 기지촌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마치 불행의 저주.

다.흑인 혼혈아는 백인 혼혈아보다 더욱 천대 받는다.)는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보낸다. 또한 스티븐은 7살때 결핵성 뇌막염을 앓아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뇌에 손상이 있어 뇌성마비자처럼 오른손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스티븐은 엄마와 글로리아의 도움없이 대소변도 볼 수 없다. 저녁에 일어나는 엄마와,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는 누나를 기다리며 스티븐은 혼자 방안에 누워서 버릇처럼 손등을 물어 뜯고 있다. 스티븐의 어머니는 스티븐을 보호할 재활원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하나 그리 쉽지가 않다.

며칠전 스티븐네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었고, 글로리아는 가출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입원중에도 글로리아를 찾아 다니고, 하루에 한번씩 나와서 스티븐에게 밥을 주고 가신다. 글로리아를 찾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글로리아는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일하고자했다. 이 말을 들은 엄마가 "너는 다른 애들과 다르고, 혼혈아니까 이왕 이길로 갈 바에는 엄마가 잘 아는 미군클럽 고고(무용수)로 일하라"고 했다 한다.

기지촌의 또 다른 여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기지촌이라는 환경과 혼혈이

라는 조건은 글로리아와 같은 아이들까지도 기지촌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마치 불럭홀처럼. 기지촌의 어두움은 아직도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

백순실 아줌마.

73살의 고령의 나이이지만 우리는 그녀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른다. 그녀는 실내에서도 항상 머플러를 쓰고 계신다. 행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 식사를 준비하다가 머리카락 같은 티끌이라도 들어갈까 염려해서이다.

그녀는 머플러와 함께 늘 짙은 화장을 하고 있다. 자신의 실제 나이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실제 그녀는 1923년생으로 일흔이 넘었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이다.

기지촌에서는 고령의 나이가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그녀는 공동체(기지촌 여성공동체)에 오기직전까지 '히빠리' (히빠리란 밤거리에서 지나가는 미군을 붙잡아 매매춘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아줌마처럼 클럽에서 일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여성들이 하게 된다.)생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히파리 생활이라도 근근히 하기 위해선 나이와 외모를 속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히빠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까지도 나이를 속인다. 항상 50세의 턱걸이 나이를 늘 말하지만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껏 해 왔던 몸파는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이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직업을 잃고싶지 않아서이다. 행여 자신의 나이가 많으면 더 이상 공동체에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약간의 중국어, 일어, 영어 실력과 해방직후 역사에 대한 해박함은 '정신대'라는 오욕의 삶으로 일그러졌던 젊은 날의 흔적을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그 이후의 삶 역시도 자신과는 무관하게 제국주의 군화발 아래서, 기지촌이라는 매매춘 시장에서 전전 궁궁하며 일흔의 삶을 채워왔다.

공동체는 그런 그녀에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준 곳이다.

세상사람들에게 속으며 선택하지 않은 삶을 강요 당했고, 언제 부터인가는 자신도 상스러운 욕과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졌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벽들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문혜림 선생님의 제안으로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차려 놓은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 두려움이었던 지도 모른다.

"아줌마, 이리 오셔서 같이 드세요" 옆에서 보다 못한 동료 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성이 이렇게 귀뜸해 준 것이었다.

"저 언니는 옛날에 포주한테 밥을 많이 먹는다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럴까야."

여기는 그런데

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녀가 밥상 앞에 함께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그렇게 1년이 걸려서 밥상앞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그렇게 1년이 걸려서 밥상 앞에 앉기는 했지만 밥그릇은 여전히 바닥에 내려 놓은채, 밥도 반찬도 아주 조금씩만 먹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제인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징어 반찬만 열심히 사다 날라 예전의 피해의식으로 채워져 있는 아줌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낯선 사람과의 대면을 회피했고, 제 몫을 못해내면 쫓겨날까봐 입을 꼭 다문 채 일만 하던 모습.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는 하

그녀는 히빠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도 나이를 속인다. 항상 50세의 턱걸이 나이를 늘 말하지만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껏 해 왔던 몸파는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이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직업을 잃고싶지 않아서이다.

지만 선뜻 우리를 믿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제까지 쌓였던 불신의 벽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이라. 가끔씩은 아직도 그런 피해의식으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정이 많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해 줄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기피증도, 그리고 밥상 앞에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소복히 쌓인 밥 위로 또 한번 주걱질을 해대는 아줌마의 모습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담백 지닌 사람에 대한 정을 확인하게 해준다. 한 동료 실무자는 아줌마의 변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쨌면 아줌마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몰라.”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준 공동체의 활동과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타인으로 부터의 애정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의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양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위안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아, 느그들 내 소원이 뭐신 줄 한번 알아맞춰봐라” “응, 월급 오르는 거” “피잇, 그까짓 월급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가” “그럼 뎡데요 아줌마” 궁금중으로 대답을 재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 하신다. “그게 뭐시냐면, 청춘이라 청춘. 뭐 청춘만 돌이킬 수 있다면 뭐시든지 할꺼다.”

지금과 같은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청춘이라면 적어도 적어도 일본군에게 혹사당하고 미군에게 능욕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주에게 매맞는 그런 일도 없는 청춘을 살아보고 싶은 그녀의 욕심을 그 누가 과하다 욕을 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제인가 고향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그 곳에서 만난 고향의 농사짓는 젊은이가 자신에게 선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이야기를 늘어 놓으신다.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농사질라고 하나 말이다” “그건 그래요 아줌마” “그래도 난 아니야. 내 나이가 삼십만 되었어도, 아님 사십만 되었어도 난 농사꾼한테 시집갔을 끼다” “아줌마 농사일 힘들잖아요 밥도 해야지, 예도 낚아야지, 밭도 매야지 얼마나 지겨워요” “아줌 봐라 그기 올때나 좋은긴데 느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어쨌면 아줌마

와 같은 삶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도 모른다.

변화된 삶. 하지만 고생만이 지루하게 연속되었던 삶의 그늘을 말끔히 걷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머리의 머플러와 짙은 화장이 역사의 짐을 킁킁히 담고 계신 우리들 할머니의 모습을 어색하게 가리고 있다. 아줌마를 대할 때면 이 일을 하겠다고 각오하면서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른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고나서 2년 반이라는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신중하게 ‘창녀개조사업’과 이 속에서 자신의 일터를 찾아 다시 건강한 인간의 삶을 찾게 되었던 중국의 수많은 창녀들의 모습.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 매춘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갑자기 매춘지역을 없앴으로써 매춘여성의 생계를 위협한다거나, 매춘여성들에 대한 도덕교화작업으로만 마무리 짓지않고, 오랜 시간의 준비작업 후 그녀들에게 새로운 일터,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출구를 열어준 중국 정부의 판단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일구어낸 백순실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의 성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내 뇌리를 떠나지 않던 조선족 여인이 한명 있다. 그 여인은 정신대로 착출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중국의 다른 창녀들과 함께 수용되어 개조과정의 한 결실인

투표권 행사에서 자신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며 울부짖었다. 지금 그 여인은 무엇을 하며 그 한 많은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 어쨌면 자신에게 들켜워진 역사를 책망하기 보다는 저물

어가는 자신의 생에 대한 아쉬움만을 가슴에 가득 안은채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중국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전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 날에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팔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꽃을 선사받고는 너무도 행복해 하시던 백순실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줌마, 아줌마가 좋아하시는 꽃에 둘러쌓여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내가 살면서 이런날도 있어야 안되겠나?” 우리들의 물음에 노여움 없는 항변을 하시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는 저마다의 가슴에는 73세라는 노년에 갖게 되는 아줌마의 불안해 하는 모습이 겹치지며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든다.

그 여인은 정신대로 착출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중국과 다른 창녀들과 함께 수용되어 개조과정의 한 결실인 투표권 행사에서 자신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며 울부짖었다.

새내기들이 보고싶은 비디오

"비록 성적 지배가 침묵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권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되었다."

-제이트 밀레트, <성의 정치학>중에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페미니즘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도 괜찮지요. 여성이 단지 남자 주인공을 뒷내주는 짜증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은 영화들을 살펴보자구요.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구마를 먹으며 영화속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수잔을 찾아서 Desperately Seeking Susan>(수잔 셰이들먼, 1985, 미국)

80년대의 페미니즘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 남성에게만 여성의 삶이 바뀌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그 반대로 진행된다. 중산층의 무미건조한 생활에 임종을 느낀 한 자정주부가 거칠것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잔으로 오해받게 되고,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자신도 그렇

게 믿어버린다. 비디오 출시명은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

<완령옥>(관금봉, 1991, 홍콩)

1930년대 한시절 중국 스크린을 풍미했던 여배우 완령옥. 그녀의 영화와 사랑에 대해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어지는 이 영화는 당시 중국 사회의 도덕과 관심의 율가미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백플린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장한옥의 연기가 일품이다.) 관금봉 감독의 다른작품 <인재뉴약> 또한 놓치기 아까운 수작이다.

<미나 타넨바움>(마르틴느 두고브송, 1994, 프랑스)

엘자 실버스타인 미나라는 한 여성의 삶. 그보다는 여성이었던 한 화가의 삶. 더 나아가 화가였던 한 인간의 삶이 흘러가는 듯이 이어지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외로운 단면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보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그 파문은 더 깊이 번져갈 것이다.

<벤디트 퀴>(세까르 파뿌뜨,

1994, 인도)

1957년에 태어난 천민 여성 폴란테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인도 내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 영화에는 아직도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강간당하고 유린당하며 고통받는지, 경단을 조직하고 이끌게 되면서 어떻게 현실에 맞서 가는지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사의 후예>(1994, 뉴질랜드)

폭력적인 가정이 있는 가족의 일상사가 이영화의 중심 줄거리이다. 큰 딸이 아버지의 친구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됨으로써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집착을 버리고, 아내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마지막 장면은 새로운 출발을 말해준다. 이 영화는 좁게는 뉴질랜드 내에서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가족과 가부장적 질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준다.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탄 수작.

<개같은 날의 오후>(이민용, 1995, 한국)

아내를 구타하던 한 남자를 집단 폭행하고 살해함으로 인해, 경찰에 쫓겨 옥상으로 도망가 3박 4일동안 투항하는 10명의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여성을 넘어서서 노인, 게이 등 소외계층을 감싸는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여성영화가 갖는 약점을 탄탄한 구성과 절묘한 복선으로 보완했다.

그밖에 비디오로 출시되어있는 영화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델마와 루이스> /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 <안나 이야기> / <피아노> / <올란도> / <바그다드 카페> / <X132> / <파니 핑크>

생활에서 느끼는 어긋난 삶을 다룬 책

삶의 여성학

자신의 삶을, 차별 받는 여성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력으로써 여성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획득한 남성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여성학자가 자신의 삶을 뼈아프게 반성한 이야기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풀었던 여성의 삶, 세상에 관한 이야기. 여성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부부관계, 여성의 일, 사랑과 성, 자녀 양육, 대중가요 등을 살피고 서영은·오정희·박완서의 글들을 분석했다. 글쓴이의 연애·결혼 이야기,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의 경험과 갈등을 묻어 두었던 이야기도 볼 수 있다. 지은이 박혜란 씨는 여성학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여성학은 머리로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내, 삶 속에 녹아 들어 가는 것"

새내기 여성학

신입생이나 직장 초년생들, 여성학 초보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인식을 심어주는 책. 역사 속의 여성억압과 그기원, 여성으로 내면화된 타에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구조

여성 해방 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보여준다. 현대 여성과 남성이 담당하는 노동의 차이, 주부·어머니·아내로서의 삶,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광범위한 여성문제들을 짚어주고 평등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이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축구공을 차는 것이 더 좋은 여자아이와 축구를 하고 노는 것보다는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을 더 즐기는 남자아이가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껍데기를 벗고서 3

선배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고 있다.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성·사

이 여자들 꼭 여자만 봐야 하는가

랑을 둘러싼 고민, 취업과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의 지표를 정립하고, 성숙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회구조적인 문제 의식과 연결하여 조언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거나 이른 오후 3시)

뉴욕 타임즈 지의 여성칼럼란에 실린 글들을 모은 책.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들은 여성해방운동의 결과로 가시적인 여성 차별이 상당히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부딪치게 되는 자기 모순과 갈등, 예기치 못한 차별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적극적으로 평등한 삶을 꾸려가려는 우리 연세 새내기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성과 사랑..그 미주보는 평행선을 만나게 하기 위한 책

남자는 늘 "괜찮다"고 말한다.

모든 성관계에서 모두들 임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임신

과 별래야 할 수 없는 것. 이 책은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해서 좀더 철저한 피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터리 피임상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피임법과 각 피임법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또한 연애, 피임, 원치 않는 임신, 중절수술 등을 둘러싸고 남녀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다루고 있다.

이책은 성이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만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다.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하루에 685건 이상의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연세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국 사회 성문화의 실상에 기반해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순결, 피임, 낙태, 성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과 성행동을 조목조목 짚어 보고 있다. 대안적 성 문화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라보며 고향을 떠난다. 남녀 관계의 수평적 여성 차별의 문제를 역사의 수직적 문제로까지 발전시킨 공선옥씨의 역작

칼날과 사랑(김인숙 지음, 창작과 비평사)

평범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등 일상 생활에서 겪는 삶의 양상과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 단편 '칼날과 사랑'은 주부가 단 한 번 휘두른 칼날마저 자신에게만 상처를 입히고 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첨예한 대립으로 일그러 내는 김인숙씨가 서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품을 모아 내놓은 가장 전무적인 여성주의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지음, 문예 마당)

자신의 직업을 고집하다 아이의 우연한 사고사에 죄책감을 갖게된 이혼녀 혜완, 남편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현모양처가 되었으나 그 삶을 못견디 자살하는 영선,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일을 포기하지만 모멸감 속에서 껌대기 뿐인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혜, 그들은 모

두 결혼과 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날의 여성들이다. 30대 초반에 이른 여성들의 삶을 통해 현대 여성의 갈등과 이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마조네스의 꿈(비바라 워커 지음, 최중수 옮김, 푸른 숲)

안티오페는 아마존 왕국의 여자 무사다. 그녀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시공을 초월해서 20세기 미국으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현대 문명이 가진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병들어 가는 인간과 자연의 불행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BC 3000년의 여자 무사를 20세기에 등장시켜 이 여성의 눈을 통해 남성 우월의 가부장제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미래 소설.

그대 지금 어디 있는가 (오현주, 서은주 엮음, 여성사)

여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한 80년대 이후의 단편들을 통해 현대계에서 여성소설의 수준과 가능성을 짚어 보고 있다. 양귀자, 이경자, 박완서, 김향숙, 이혜숙, 정도상, 방현석, 김인숙씨의 작품이 실려 있다.

1. CC 안에서 내다보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아나의 문화 9호, 또아나의 문화)

좁은 범주에서의 문학이라기 보다는 말하기 글쓰기 행위에서의 정치성을 주제 삼아 글을 모아 낸 새로운 시도. 여성의 자기 표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체험을 풀어낼 새로운 언어를 모색하는 노력의 하나로서의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총여학생회를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저희 총여학생회에서는 참신한 96학번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은 남녀 모든 새내기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CC 안에서 내다보기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여학생들은 정말로 활기차고
 재미있고, 그리고... (text continues in a conversational tone)



2. 밖에서 들여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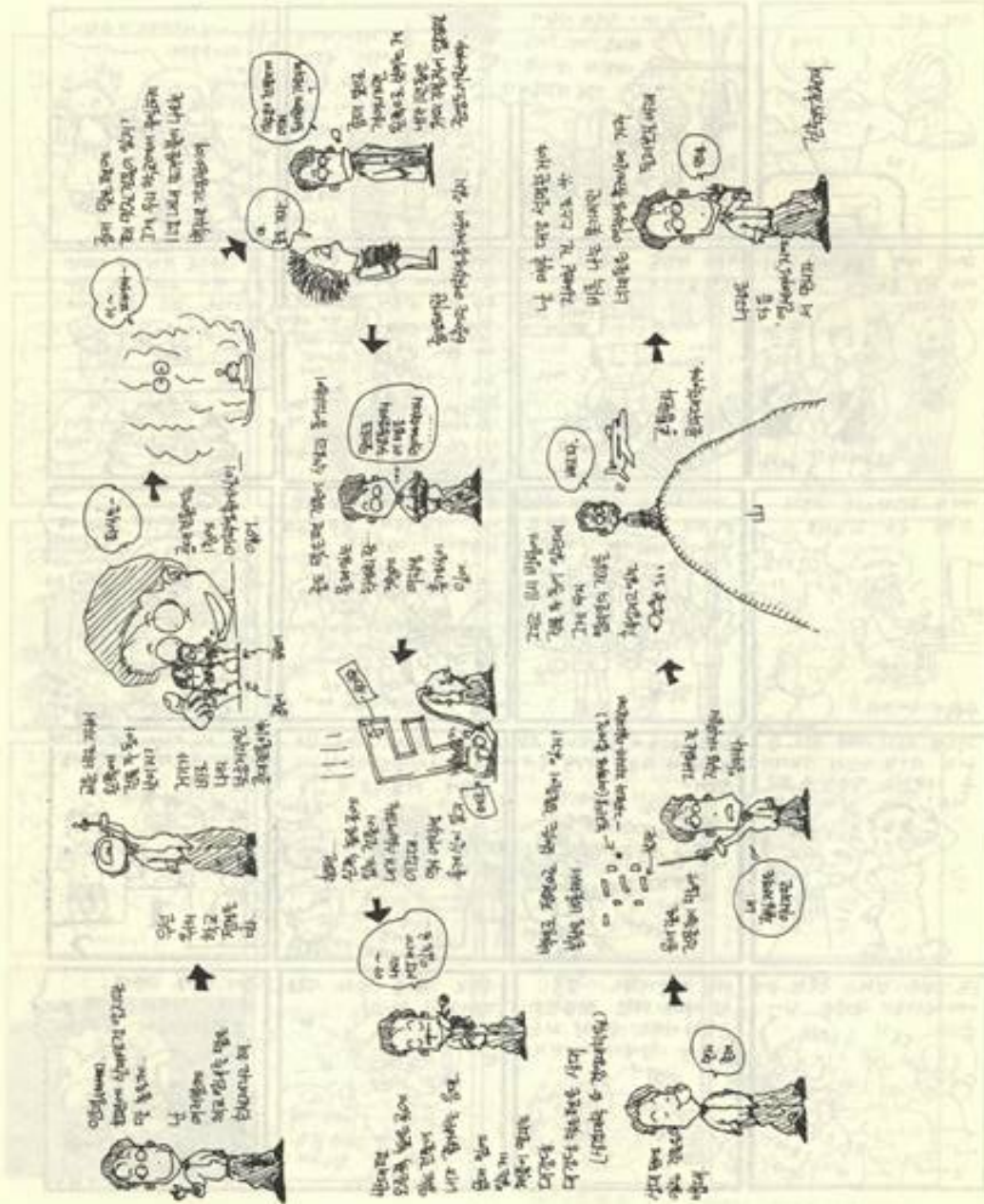


바다를 건너 'C.C. 안에서 내다보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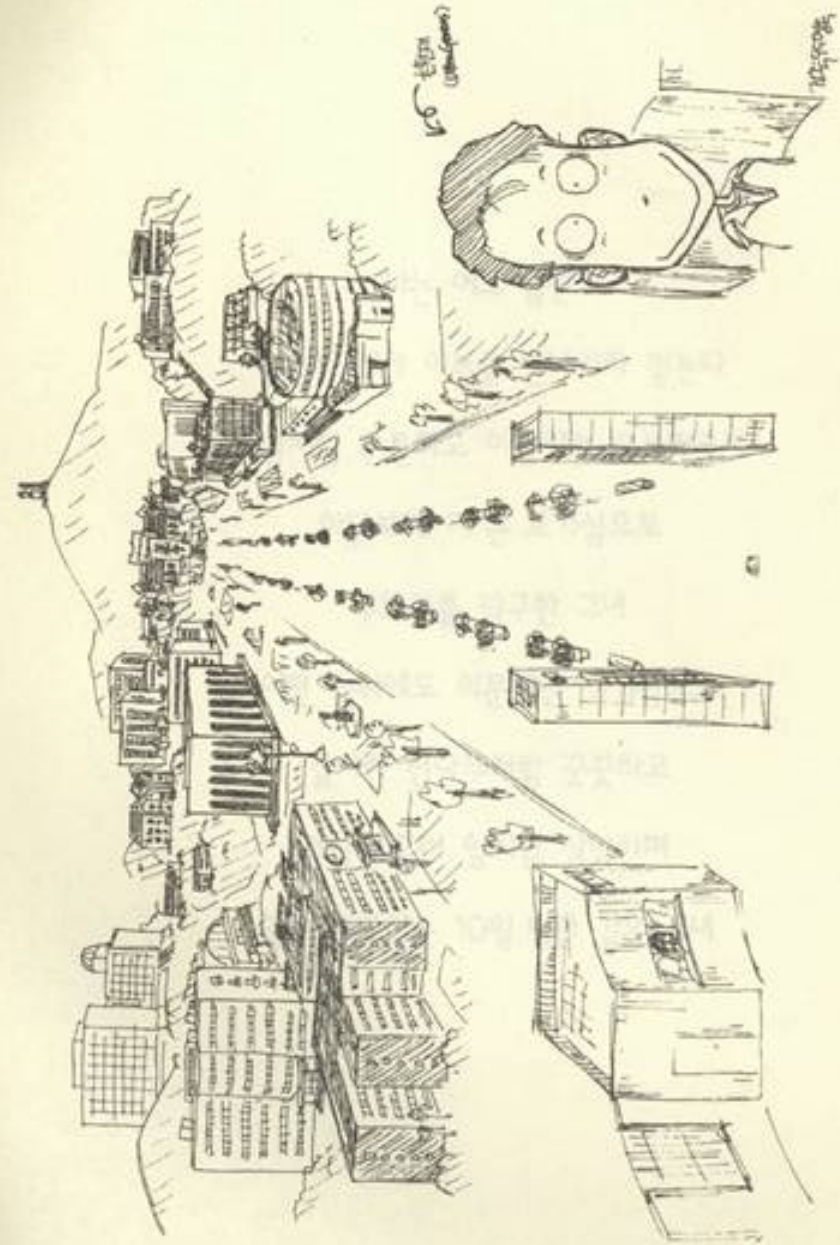
3.진=선=미=행?=beauty?



학교안의 여학생 휴게실 위치



만화로 보는 학교안내



메모란

학교 안의 1인 독점 공간으로 활용

.....
마무리 시

나는 어느 날인가

장정임

나는 어느 날인가
당당한 진짜 이브를 만나리라 믿는다
아담처럼 튼튼하고 아담처럼 부드러우며
아담보다 더 큰 호기심으로
무화과를 탐구한 그녀
어떤 권위에도 의문했던 씩씩함으로
잘자란 전나무처럼 곳곳하고
5월 포플러 잎처럼 상냥하며
알곡 출렁이는 10월 벌판 같은 그녀